

5/10(월) 다니엘 묵상 16

다니엘 3:28-4:3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어명을 어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일곱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모두 불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1)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뜨거운 불속에 던져졌지만 그들의 몸이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심지어 불에 탄 냄새도 없었습니다(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겹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를 지켜본 자들은 단지 느부갓네살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7절은 바벨론 왕의 모든 관리들 즉 ‘총독과 지사 그리고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왕의 금신상 앞에 절했던 자들이었고 그 중에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고발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 친구를 고발했던 자들의 최후가 어떠했을지 그 다음 구절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나,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가리켜 자신의 신이 아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그저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신으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믿고 두라 평지에 세웠던 신상은 벨(Bel)로서 그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수메르 지역의 세 신은 ‘벨과 야누 그리고 엔키’였고 ‘벨신의 아내께서 왕을 수호하시기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을 보아도 그 당시 바벨론에 벨(Bel)신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2)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는 믿지 않았지만 그가 경험한 일로 인해 그의 이름을 온 천하에서 높이게 됩니다(4:1,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천하’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라기 보다는 당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지역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광활한 영토로서 당시 동으로는 엘람과 메데, 서로는 지중해, 남으로는 애굽까지 포함된 지역이었습니다. 한편, 본문 2-3절의 자세히 내용을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별이 필요합니다(2-3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왜냐하면 일부 학자들도 단 4:2-3절에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가리켜 다니엘서 3장의 기적과는 다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단 4장의 고백은 3장과는 달리 세 친구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이적과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렘 27:6**,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기 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도구 중에 하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아무리 높고 바벨론의 힘이 강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가 섬기는 어떤 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심을 여러 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몇 번씩이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생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고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약 2: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믿지만 그들 스스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쉽게 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중생으로 인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딤후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고 중생은 우리에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단 한 번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마 7:16-20**,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 2. 한국을 위한 기도:** 한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을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뉴헤이븐 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몽골 김봉춘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